80% 대학생활중 학문·인간관계 우선

◇학생생활연구소 신입생 실태조사

우리학교 학생생활연구소(소장 서청석교수)는 지난 3~4월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실태조사는 크게 신입생의 인적사항과 생활환경, 대학에 대한 인식, 입시정책에 대한 태도, 우리학교의 사회적 평가 등으로 나누어졌다.

전체조사대상인 신입생 4천4백40명(서울 2천30명, 수원 2천4백10명)중 3천1백59명(서울 1천5백명, 수원 1천6백59명)이 응답하여 약 71%의 회수율을 보였다.

우리신문은 이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게재하여 신입생의 의식과 관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註〉

1. 신입생의 인적사항과 생활환경

가. 연령분포

신입생의 연령분포는 서울캠퍼스의 경우 19세(75년생)가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0세 18.3%, 18세 14.1%, 21세이상이 17.9%의 순으로 나타나 93년, 92년 신입생과 비슷한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다. 20세 및 21세 이상의 신입생 비율은 의대, 치대, 약대, 법대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아서 재수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로 의대의 경우 20세가 24.0%, 21세 이상이 20.0%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계열 및 법학계열 입학을 위해서 재수하는 경향이 높다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19세가 54.0%, 20세가 17.9%, 18세가 13.7%, 21세 이상이 13.6%의 분포를 보였다. 수원캠퍼스 단대별 연령분포는 평균치에서 그리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 거주 희망지

입학후 거주 희망지는 서울캠퍼스의 경우 자택이 57.9%이고 수원캠퍼스는 64.7%로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수원 모두 자취나 기숙사의 비율에 있어서 거의 동등한데 서울의 경우 하숙 6.1%, 수원 3.7%, 친척집이 서울은 4.3%, 수원은 2.3%이다. 양 캠퍼스의 학생 주거지로서 자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는 이유로 곧 지방 학생들은 수원캠퍼스보다는 서울캠퍼스를 선호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나 양 캠퍼스 모두 기숙사시설을 확대하는 경우 지방학생의 서울캠퍼스 선호가설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다. 학비조달 및 장학금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특징이듯이, 신입생의 학비는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서울캠퍼스 85.5%, 수원캠퍼스 88.7%)하고 있다. 본인이 학비를 조달한다는 응답은 4.8%, 수원 3.6%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장학금에 의해 학비를 조달받는 학생들의 비중은 서울과 수원이 각각 4.1%, 3.6%이다.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등록금 및 생활비를 위한 것으로 서울과 수원이 동일하게 49%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약 17~18%의 학생이 용돈을 위해서 장학금을 희망하고 있다. 장학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서울(3.8%)과 수원(3.7%)이 거의 같은 비율을 보였다.

라. 용돈지출 규모

용돈 지출액에 대한 조사에서 본교 신입생의 과반수 이상(약 53%)은 한달에 10~20만원을 용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5만원 이하가 4.6%, 5~10만원이 20.8%, 10~15만원이 32.3%, 15~20만원이 21.6%, 20만원 이상이 18.8%였다. 수원캠퍼스의 자료도 이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원캠퍼스 자료에 따르면 한달 용돈으로 10~15만원을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은 배년 가장 많으데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학생의 수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대학에 대한 인식

가. 대학생활에 대한 지각

(1)대학진학 목적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를 묻어본 결과, 전문지식 습득 및 학문추구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전문지식 및 학문추구(39.3%), 자신의 소질개발(17.6%), 사회적 대우(12.7%), 취업(9.3%), 깊이 있는 교양(9.1%), 남들이 대학에 가므로(4.6%)의 순이었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전문지식 및 학문추구(34.2%), 자신의 소질개발(17.0%), 사회적 대우(16.5%), 취업(13.9%), 깊이 있는 교양(7.6%), 남들이 대학에 가므로(7.1%)의 순이었다. 대학진학 목적을 단과대학별로 보았을 때, 의대, 약대, 정경대, 법대, 공대, 자연과학대 및 사회과학대의 신입생들은 취업목적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반면 의대 및 문리대학생들은 깊이 있는 교양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각 단대별로 학생들의 진학목적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2)대학생활에서 중점하고 싶은 것

신입생이 대학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폭넓은 인간관계(서울 38.5%, 수원 42.2%)와 학문적 탐구(서울 44.4%, 수원 35.5%)이다. 교양활동, 씨클활동, 이성교제, 취미활동, 해외여행 등은 약 3~7%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폭넓은 인간관계와 학구열이 80%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신입생들이 대학을 단순히 직업학교로 보지 않고 자신의 학구열과 인격,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넓히는 기구로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나. 학과에 대한 태도

(1)지원학과에 대한 긍지

신입생들이 선택한 학과에 대한 긍지는 서울과 수원캠퍼스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신입생은 68.4%가 비교적 또는 매우 만족하고 있으나, 수원캠퍼스의 신입생들은 56.2%가 비교적 또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은 서울이 23.9%, 수원이 31.3%이고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학생은 서울이 7.7%, 수원이 3.4%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만족도가 높은 반면 불만족을 표시한 학생의 비율도 수원캠퍼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 중 학생지도의 필요성이 서울캠퍼스에서 더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학과 선택시 고려한 점

학과선택시 고려한 주요사항은 수원캠퍼스의 경우 자신의 적성(25.7%), 취업전망(24.6%), 합격가능성(24.4%)으로 세 항목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학문적 흥미(17.8%)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고 사회적지위(2.4%)에는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서울캠퍼스의 경우 자신의 적성(33.4%), 학문적 흥미(24.6%), 취업전망(16.7%), 합격가능성(16.1%)의 순서를 보이고 사회적 지위(4.7%)는 낮은 응답을 하였다.

(3) 학과선택시 영향을 준 사람

신입생들의 학과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본인(64.8%), 부모(13.2%), 교사(9.2%) 순이었고 수원캠퍼스의 경우 본인(61.5%), 교사(12.5%), 부모(12.1%)순이었다. 그러나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법대의 경우 부모의 영향이 매우 컸는데 이는 이들 대학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대학으로 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범대, 음대, 체육대, 산업대, 체육과학대의 경우 교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대학들이 특기와 적성에 맞아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학생들의 재능을 교사가 더 잘 평가하는데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 대학우선학격을 고려한 결과인듯 하다. 따라서 우수학생유치의 홍보방향은 한, 의, 치, 약, 법대 등은 입시학원 중심의 학부모초청 특강으로 사, 음, 체, 산, 체과대 등은 교사초청특강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 본교 입시정책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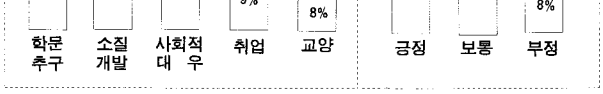
(1) 본교의 입시홍보

서울 캠퍼스의 경우, 본교의 입시홍보정책에 대해 비교적 또는 매우 불만족하다는 비율(38.6%)이 비교적 또는 매우 만족하는 비율(19.9%)을 훨씬 상회하였고, 보통이라고 답변한 신입생은 40.3%에 달했다. 수원캠퍼스의 경우에도 비교적 또는 매우 불만족하다는 비율(41.5%)이 비교적 또는 매우 만족하는 비율(17.5%)보다 훨씬 높고 보통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39.7%에 달하였다.

(2) 입시선발기준

본교의 입시선발기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신입생은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 본교사를 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서울 31.3%, 수원 27.6%)고 답변한 비중이 가장 컸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그 다음으로 대학수학능력과 본교사만 적용(23.6%), 내신성적과 본교사만 적용(10.8%)순이었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본교사 모두 적용(27.6%),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본교사만 적용(22.5%),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만 적용(13.4%), 내신성적과 본교사만 적용(10.8%). 대학수학능력시험만 적용(10.3%), 본교사만 적용(10.1%)순이었다.



43% 교육시설·교수진 확보가 학교발전 관건

학업·진로고민…의논상대는 친구와 선배 65%

3. 심리적 특성

가. 개인의 당면 문제

신입생이 느끼는 당면문제에 대해서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업문제(31.9%), 성격 및 사회적응(25.8%), 장래 및 진로(20.2%), 도덕 및 가치관, 이성(4.3%), 경제(3.9%), 병역(3.5%)순이었고, 수원캠퍼스의 경우 학업문제(29.9%), 성격 및 사회적응(25.4%), 장래 및 진로(22.0%), 도덕 및 가치관(6.6%), 경제(5%), 병역(5%), 이성(3.1%) 순이었다.

나. 의논상대

개인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상대에 대한 응답은 선배와 친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선배와 친구(63.7%), 스스로(13.8%), 부모와 형제(12.6%), 교수와 선생님(3.5%)순이었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선배와 친구(65.3%), 스스로(14.2%), 부모와 형제(11.0%), 교수와 선생님(4.1%)순이었다. 따라서 신입생의 고민 상대는 단연 선배와 친구가 가장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 하나의 진리임을 입증하였다. 교수는 외논의 상대로 그리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제지간에 거리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교수들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면담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본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 본교에 대한 사회적 반응

본교의 사회적 반응에 대해서 신입생들의 절반 이상이 비교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비교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신입생이 56.1%, 보통이 34.6%, 비교적 또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8.3%를 차지했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비교적 또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한 신입생이 53.1%, 보통이 34.0%, 비교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생이 11.8%의 비율을 보였다. 이 결과는 신입생이 본교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판단되나, 본교의 구성원 모두가 경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하는 채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과거의 조사자료가 없어서 본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

나. 본교 발전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일

본교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에 대해서 서울캠퍼스의 신입생은 교육시설 확충(33.8%), 우수교수진 확보(24.0%), 학생들의 자부심 고취(15.1%), 대학문위기 조성(10.0%), 후생복지 시설확충(4.9%), 대학문화조성(4.8%), 적극적 대외홍보(3.2%), 입학시 우수학생 유치(2.0%)였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교육시설 확충(51.2%), 우수교수진 확보(7.3%), 학생들의 자부심 고취(10.2%), 대학문위기 조성(6.3%), 후생복지 시설확충(7.9%), 대학문화조성(11.0%), 적극적 대외홍보(2.6%), 입학시 우수학생 유치(2.3%)였다. 서울과 수원캠퍼스 신입생간의 본교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이 상이한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수원에는 교육시설확충과 대학문화조성이 매우 시급한 항목이고, 서울의 경우, 교육시설확충 못지 않게 우수교수진 확보가 중요한 항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목에 대한 해석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들이 본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을 위해 제시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전적 통계라는 점이다. 더 임체적인 여론을 개진키 위해서는 이들이 졸업할 시기에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해서 사후적 자료를 얻는 것이 중요한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이 보고서는 3~4월에 설문지조사를 통한 "경희대학교 '94 신입생을 위한 의견조사서"의 결과를 일부 요약한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충분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에 따른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교의 신입생들의 월 용돈 지출액은 10~15만원이 가장 큰 비율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체감하고 있고, 20만원이상을 지출하는 학생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학과 선택시 자신의 적성, 학문적 흥미, 취업전망, 합격가능성 등이 고려한 주요사항이었고 약 65%는 본인이, 13.2%는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신입생들은 학업문제, 성격 및 사회적응, 장래 및 진로 등을 주요한 당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의논 상대는 친구와 선배임이 밝혀졌다. 또한 본교에 대해 입학전부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입생들은 비교적 건전한 사고방식과 발전적 의식을 가지고 본교에 진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체능계열의 신입생들은 비교적 적성을 잘 선택하여 학과에 진학하였고, 의학, 한의학, 치학, 약학대학의 학생들은 사회적 명성에 버금가게 신중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교의 입시정책과 위상에 대한 홍보정책은 그리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본교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있어야 하겠다.

본교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시설 확충 및 우수 교수진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구심점이 형성되어야 하겠다. 특히 본교는 서울과 수원에 캠퍼스가 있고 수원의 경우 아직도 교육시설 및 대학문화 시설 및 주변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이 못되므로 대학당국의 지속적인 투자 및 여건조성이 있어야 하겠다.

대학생 하계연수

장립 주년 1924 1994

풍요로운 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꿈입니다.
1924년 창업이래 70여년을 인간존중의 삼양문화를 바탕으로
보다 풍요로운 사회건설에 한 몫을 담당해 온
우리 6천여 삼양가족 모두는
보다 밝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 여러분들과
이 뜨거운 여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마련하게 된 하계연수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구 분	하계연수과정	이학연수과정
①연 수 기 간	1994. 7. 18(월)~7. 23(토) 1주간	1994. 7. 1(금)~7. 30(토) 주 4일(월, 화, 목, 금)강의
②모 집 인 원	40명	30명(15명씩 2 class 운영)
③응 모 자 격	4년제 정규대학 재학중인 2, 3, 4학년 대학생	4년제 정규대학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서울지역 거주자
④선 발 방 법	서류심사	어학수준테스트 (테스트 일정 및 장소 : 지원서 접수시 안내)
⑤프 로 그 램 내 용	• 삼양그룹 소개 • 공장견학 • 탑별 사례연구 및 발표 • 교양강좌 • 일체감 조성훈련 • 비지니스 게임 • 명승지 관광 • 단합대회 등	• 외국인 강사 초빙하여 영어회화 중심으로 어학강좌. 어학수준테스트 결과에 따라 반편성(고급반/중급반) AM 09 : 30~10 : 20, 10 : 30~11 : 50 • 공장견학, 명승지 관광, 단합대회 등
⑥접 수 기 간	1994. 6. 20(월)~6. 28(화) 평일은 17 : 00, 토요일은 12 : 00까지	1994. 6. 1(수)~6. 10(금) 평일은 17 : 00, 토요일은 12 : 00까지
⑦합격자발표	지원서 접수시 안내	지원서 접수시 안내
⑧지원서배부 및 접수처	본사 인사부 인사과(성적증명서 1부 및 반명함판 사진1매 첨부,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	본사 인사부 인사과(학생증 사본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첨부,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
⑨기 타	•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참가 답례금과 고급기념품 지급 • 연수 참가비는 없음	• 출석상 및 우수수료상 시상 • 수료자 전원에게 고급기념품 지급 • 연수 참가비는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부 인사과로 문의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63(종로 5가 지하철역 하차, 삼양빌딩) 우편번호 : 110-725
TEL. 740-7155, 7156

삼양

● 주식회사삼양사(仕織, 식품, 사료, 化成, 환경사업) ● 삼양증기주식회사 ● 선일포도당주식회사 ●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 삼양화성주식회사 ● 신한제분주식회사 ● 전북투자금융주식회사 ● 주식회사 삼양메디케어 ● 디원 삼만 파이버 ● 삼양그룹중앙연구소 ● 삼양그룹의약연구소 ● 삼양그룹선일연구소 ● 양명회 ● 수당장학회